



## 농촌 목회와 생태

강형선

### I.

몇 주 전에 밭에 약호박을 100 주 정도 심었는데 밭 중앙에 두력을 지어서 밭 양쪽으로 뺏어나가게 심었습니다. 길게 두력을 지으면서 오는데 한쪽을 짓고 나서 돌아보니 흙을 뒤집을 때는 신경 쓰고 보이지 않았던 밭자국이 길게, 선명하게 나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길을 가야 지나온 길이 보이는 제 삶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제 유년시절을 제외하고는 저 역시 대부분의 시간을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농촌목회를 단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면서 강원도 산골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에서의 목회야 주로 교회 내의 기본적인 여러 프로그램과 심방이 목회자에게 중요한 일거리입니다만 시골에서는, 그것도 저회처럼 어른이 한 명도 없었던 교회에서는 그런 기본 프로그램도 녹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심방을 가는 것도 그리 반가이 맞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골 어른들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같이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물론 시골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교회이기에 어떻게 재정을 자립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시골 농부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직접 벌을 키우시면서 소득을 가지고 생활도 하시고 교회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질적인 목회의 일이 주변으로 밀려나 본인 스스로 회의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 목회의 위치가 시골이고, 목회의 대상이 시골사람들이다 보니 제 경우는 참 불가피하게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농사를 짓는데 스무 평 남짓한 텃밭에다 고추, 가지, 호박, 땅콩, 서리태, 더덕, 오이, 딸기, 토마토, 해바라기, 상추, 수박, 참외를 심었습니다. 씨를 뿌린 것이 이것들 외에도 더 많은데 씨를 깊게 심은 탓에 발아를 하지 못해 대부분 먹을 수 없었고 주로 모종을 옮겨 심은 야채들을 맛보면서 땅과 씨앗 속에 담겨진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알게 된 자연계의 몇 가지 사실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씨앗).
2. 아름다운 것은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것이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3.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지렁이와 거름이 하는 것이다.
4. 인간이 생태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다.

텃밭을 가꾸면서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면 그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했던 좋은 안내자를 저는 '자연농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 기술센터에서 5박 6일 동안을 140명의 농부들과 함께 하루 두 끼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논스톱으로 이어지는 강의 속에서 우리 주변의 생태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화명령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마치 우리가 생태계의 주인이나 되는 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대 위에 세워진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성경 시편에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그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에 나온 말씀처럼 축복받은 나라의 전형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인양 모본을 삼았었습니다. 그러나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땅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적인 사명이고, 관리자로서의 명령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개발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문명이나 도시화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대리 하나님으로 충족받기 위한 보상심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의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이 화려한 문명을 발생시킨 개발자들과는 사실과 문명은 대부분 생태계의 질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연농업이 사실 성경의 원리와의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한 고독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삶을 통해 완성된 농업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농업의 창시자이자 권위자인 조한규장로는 평생의 업적을 지금에 와서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최근에 훈장을 타기도 했습니다. 땅을 생각하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았던 자연농업이 많은 경우에 거대 기업의 이익과 상충되었기 때문에 조희장은 매장의 위기도 슬하게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유명한 비료회사에서 그를 간첩으로 몰아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생태'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살아 있는 생명 그대로의 상태' 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한자어를 풀이해도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에서 인위적인 손이 개입되지 않는 그대로의 것입니다. 자연농업은 바로 이러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종의 질서를 기반에 두고 서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가지의 원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연의 섭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섭취한 음식을 자신이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장은 자율신경에 의해 움직일 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이 위장에 좌우된다면, 바닷물을 다 마신다 해도 욕망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욕망의 한계를 알고 있으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위장에는 절제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농업은 과연 무엇인가 진지하게 궁리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농업은 주어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연을 터전으로 삼아,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원천인 영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행하는 숭고한 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연농업의 둘째 원리는 ‘필요한 재료는 늘 주변에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기 대소변을 삼년 동안 먹지 않으면 노랑꽃이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배설물로 재배한 그 지역의 자연야채를 삼년 이상 먹지 않으면 당뇨병이나 황달에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분을 발효시켜 만든 영양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농업에서는 오이에는 오이 결눈, 토마토에는 토마토 결눈으로 만드는 ‘천혜녹즙’을 가지고 비료처럼 만들어 뿌려줍니다. 인간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는 늘 우리 주변에 있으며, 그것도 충분히 쓸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9,3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으며, 태초에 각각의 씨앗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그 나름대로 만들어진 것을 인간이나 동물이 활용한 데 불과하다. 깊은 산의 울창한 나무숲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영양학이 애용하는 분석의 결과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간섭하지 않은 토양은 세월이 갈수록 심층부까지 비옥해집니다. 기계를 이용해 흙을 갈아엎지 않아도 뿌리는 땅 속 깊은 곳까지 뚫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체가 그 지역이나 환경에 적응해 생명을 유지하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원리는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농민이 평생 농사일에 매달린다 해도 불과 40-50회 정도의 경험을 쌓는 데 불과합니다. 이 경험들조차도 동일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얻어진 것들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늘 새로운 모습으로 동식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며 항상 ‘제로’의 위치에서 사물을 살피는 것이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농업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도 유년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로’ 상태에서 관행적인 농사를 시작했다면 미처 볼 수 없었을 생태계의 무한한 사실들을 자연농업을 통해 비로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II.

그렇게 자연농업을 접하면서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정을 지나오면서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몇 가지의 생태적인 논의를 잠깐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아마도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지의 가치나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학술적으로 활발하지만 토양의 질적인 상태는 사변적이지 크게 이슈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목격할 가장 큰 위기는 땅값이 아니라 땅이 거의 죽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저는 늘 어르신들의 타깃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제 밭에는 풀이 무성하기 때문인데, 시골에서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은 곧 게으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마을에서 얻은 밭은 그야말로 돌짜밭이었습니다. 쇠꼬챙이로 찢어도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작년에 고추와 콩농사가 실패했는데 그것도 무성한 잡초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당 건축 때문에 심어놓고는 이내 돌아볼 여지가 없었는데 그 사이 이미 밭을 점령한 잡초를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라목손을 쓰라고 난리였습니다. 혼자서 낮으로 베기도 하고 예초기를 빌어다 몇 번씩 잡초를

배었지만 그 때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호미를 들고 돌아서면 또 잡초가 난다'고 합니다. 농부들 중에 풀에 대한 노이로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풀에 대한 난제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농민들의 구세주 '그라목손'(제초제)입니다. 이거 한 방이면 잡초들이 이내 말라죽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 감자밭에 갔는데 옆집에서 콩밭에 제초제를 뿌리다가 저희 감자줄기까지 말라죽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역하고, 불가해한 냄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라목손'의 주원료가 다이옥신이고, 그것이 바로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의 성분과 거의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당시에는 병사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고엽제가 무슨 소독제인양 발가벗고 나가서 맞기도 했다는데 삼십 년이 지난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엽제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맹위를 떨쳤던 그 약이 슬그머니 농민들의 손에 제초제로 쥐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그라목손'의 신비한 능력에 의지해서 땅의 생명을 담보로 다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민들 역시 매끄럽고 잡티가 없는 완벽한 농산물을 원하기 때문에 제초제나 해충제의 사용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퍼마켓에 가면 빨갛게 잘 익은 미니토마토를 볼 수 있는데 4년 동안 매해 심었어도 그런 색깔은 익히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먹음직스럽고 매갈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 또 약을 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일본에 수입된 미국산 딸기가 어느 잡지에 실린 것을 보았는데 사진으로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코팅제를 써서 방부제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땅에서 정직하게 내는 그 열매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재료인데, 그야말로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사워진 농약덩어리가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비료 역시 그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몇 년 동안 비료로 농사를 지은 땅을 가보면 썩이로 도저히 팔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들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매매할 수 없다는 헨리 조지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가난 때문에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토지공개념의 정당성을 유추해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땅이 흑사당하지 않도록 쉬게 함으로써 땅의 지력을 높여 땅에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세심한 배려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정말 원하는 것은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그라목손으로 농민들이 잡초에게 승리하는 동안 땅에는 그 혼한 땅강아지, 메뚜기, 지렁이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제가 경작하는 밭이 볼품은 없지만 일을 하다보면 무수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어떨 때는 마치 비가 오는 듯한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도 밭이랑 사이에 작물보다 높이 솟아오른 풀을 베어서 그 위에 다시 깔아주고 왔습니다. '풀이 많아 내년에는 이 땅이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올 봄에는 없던 지렁이가 보이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밭을 보면서 평안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두통에 시달리다가 흙냄새를 맡고 두통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땅과 우리와는 모종의 일체감이랄까 하여튼 말로 설명이 잘 안되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을 가까이 하고 그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는 다양하겠지만 생태계의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카톨릭계에서는 일찍부터 카톨릭농민회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고, 원주에서 생명과 밥상운동을 시작한 장일순선생님 역시 카톨릭 신자로서 한살림운동이 전국적으로 뿌리뻗는데 기여하셨습니다.

다. 이런 운동을 많이 일으켜야 되겠고,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땅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기독교를 가리켜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며 “믿어라, 돈내라 집짓자”로 형편없이 비하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의 교회는 실로 땅을 살필 겨를이 없이 땅 매입하기에 급급해 화려한 건물은 올렸지만 땅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죽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을 간단하게 서술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구름이 성소에 뜨면 출발했고 멈추면 그대로 정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실질적인 거리는 삼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철학을 따지자면 ‘빨리’와 ‘많이’라는 또한 계파의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빨리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시골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시대의 시대정신인 ‘맘모니즘’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까지 심각하게 이식된 것입니다.

땅은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빨리’와 ‘많이’라는 맘모니즘의 철저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묵힌 저희 밭에 가서 쇠꼬챙이로 땅을 찔러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두 번째는 소비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를 줄여보려고 애쓰는데도 왜 이렇게 쓰레기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가 넘쳐나는 것은 아마도 소비와 연관이 되겠죠. 제조사들도 더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더 화려한 광고와 더 많은 포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봉다리 안에 또 다른 봉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비할수록 불가피하게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늑대와 춤을’과 같은 영화에서도 보았지만 인디언은 짐승을 죽일 때 결코 불필요하게 남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버팔로 같은 것을 사냥하게 될 때 반드시 제사를 지냅니다. 버팔로의 영혼이 인간의 영혼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버팔로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버팔로와 인간이 일체화된다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의 관점으로만 몰아붙인다면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자연관과 우주관, 생명관이 갖는 좋은 점들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대서양에 ‘트리스탄 다 쿤하’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얼마나 작냐면 군사지도에나 나오는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겠죠. 전체 면적이 20평방마일이라고 하니 보통 지도에서는 보기 어려울 법합니다. 이 섬은 본래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이 발견한 모양인데, 그 뒤 영국 사람들이 차지해서는 수비대가 오랫동안 주둔해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혹시나 이 절해고도가 어느 땐가는 어떤 쓸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쓸모가 없는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산으로 이루어진 이 작은 섬은 섬 대부분이 불모지이고 섬 가장자리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조금 있어서 감자나 옥수수를 심어 먹을 수 있을 뿐이고, 주변의 바다는 험하고 배를 안전하게 정박시킬 만한 지형 조건도 아니었고, 게다가 풍광마저도 보잘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후 군사적으로 용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 세기 이상 있어보았지만 비용만 들 뿐 군사상으로도 중요성이 없

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1817년 영국 해군이 이 섬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철수하는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하사관으로 글라스라는 이름의 한 군인이 자기와 자기 가족은 그대로 섬에 남아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는지 모르지만 그 군인과 아내와 아이 셋과 함께 이 섬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이 섬을 지나다 파선한 배에서 헤엄쳐 온 몇 사람의 남자가 이 섬의 새 주인이 되었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배를 만들어서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근 한 달이나 걸리는 항해를 해 흑인 여자 몇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더 흐른 후에 이곳 주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단 한 줄로 된 이 법은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권리를 누려서는 안된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습법에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지식문화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어로 된 성경책 한 권이 있었고, 학교는 물론 없었습니다. 언어도 18세기 영어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과 주민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61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국 해군 당국이 이 섬에 대해 관측을 해온 모양인데 1961년에 이 섬에 화산 폭발이 재개되었고 어디까지나 영국 왕의 신하들인 만큼 그곳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는 것이 해군의 임무였던 모양입니다. 화산이 분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 몰살할 뻔한 트리스탄 주민 270명이 해군 함정을 타고 잉글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산업문명사회의 한복판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 노동자나 청소원 같은 직업 외에 달리 할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해군으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이제 화산 폭발이 중단되었고 앞으로는 더 이상 폭발의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동안 섬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돌아가봐야 농토도 괴멸되고 가축들도 몰살당하고 집들도 모두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져왔던 트리스탄 섬 주민들은 해군으로부터의 통보를 받은 직후 주민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영국 본토 남자들과 결혼을 했던 6명의 여자를 제외한 주민 전원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데 의견의 완전한 일치를 보았습니다.

군이 본토에 남아도 괜찮다는데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뉴스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당시 트리스탄 사람들이 영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이라는 것이 당시 영국의 독신자의 최저 생활비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금을 가지고 평균 네 명으로 된 가족이 2년 동안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갈 때는 상당한 저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낚시 도구도 마련하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장만하고, 곡물 종자도 구하고, 또 섬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자도 구입했다고 합니다. 독신자 최저 생활비의 삼분의 일을 가지고 네 식구가 생활도 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곳으로 돌아가겠냐는 말에 그들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영국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시간 정해 놓고 보스 밑에서 간섭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트리스탄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향에는 시간표도 없고, 해고 위협도 없고, 착취하는 사람도 착취받는 사람도 없고, 부자도 가난뱅이도 없고,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경찰도 도둑도 학교도 세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장황한 이야기를 저는 현대문학을 공부하면서 부교재인 김종철의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삼인출판사)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것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

리 일상생활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헛된 욕망의 하나를 문제삼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문제 하나하나를 되살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내포되어 있는 반생명의 구조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구조'이고 생태적으로 말하면 '반생명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의 문제는 역시 땅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땅을 혹사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더 많은 자원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온 어떤 시대보다 빨리, 더 많이 소비시키는 것이 미덕이고 최고선이라는 최면을 걸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최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삶』의 저자인 스콧과 헬렌은 그들이 비록 사회주의 지식인들이지만 이 세상에 편만한 반생명의 구조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스스로가 최면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 자신은 없지만 적어도 몇 년 정도는 한 번 실천해보고 싶을 정도로 대단히 끌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역시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좀 모호하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식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좋은 책을 소개하면, 그물코에서 나온 『녹색 시민 구보씨의 하루』(존라이언앨런 테인 더닝 著, 고문영 譯)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태문제에 대한 입문서로도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부제를 '일상용품의 비밀스러운 삶'이라고 붙여놓았는데 일례로, 우리가 식사 후에나 대화 가운데 가볍게 즐기는 원두커피 한 잔이 나오기 위해서는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원두 1/60 정도인 약 100개의 원두가 든다는 것과, 이 커피가 생산되는 가운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짧은 기간 동안 울창한 콜롬비아의 원시림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원시림이 사라짐으로 비록 콜롬비아가 지구표면의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식물 중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수많은 식물의 원산지의 보고이고 가장 많은 종류의 새들이 이곳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작고 잘 다듬어진 커피나무를 위해 새들의 고향인 키 큰 과실수와 활엽수들이 베어지고 이를 통해 토양의 부식이 극심해지며 이 나무에 서식하던 새들의 95%가 멸종되고 이러한 천적이 사라지자 해충들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농장주들은 살충제 사용을 증가시키고 그 강한 독성의 화학 약품의 일부는 노동자들의 폐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흡수되거나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커피의 곱겉질을 벗겨내기 위해 원두를 디젤 엔진의 분쇄기에 넣어 500그램의 원두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 1킬로그램의 곱겉질이 강에 버려져 그 곱겉질이 부패되면서 강에서 물고기가 필요한 산소를 소모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모든 물품들의 비밀스런 과정이 대부분 이와 같다는 사실을 통해 저자는 소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세계 전체 에너지의 24%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에너지 과잉 소비국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중국인들 전체가 수세식 변기를 갖게 되는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중국당국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전세계인들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개의 지구가 필요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9개의 행성이나 대기층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를 보면서 현재의 우리 생활이 지나치게 과도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하고, 자족하며 사는 미래를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난함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우리가 쓰는 물건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해결의 단초가 되는 퍼즐 조각들은 사실 여기 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맞추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채무의식이 필요합니다.

### III.

생태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마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환경위기가 지금 문제이지만 결국 생태론의 문제보다는 인간론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되어야 환경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 법적 장치나 정책 차원에서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런 외면적인 방법으로는 생태계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틀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 각자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을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것은 사람 마음이 만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팔복과 이 세상의 오복은 그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전자의 목표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현재 생태계 위기의 주요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매어 있는 이상 어떤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도 현실을 되돌릴 만한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좋은 생태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이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맺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더 큰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라브리가 있는 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 당신은 누구십니까?